

# '도서관 통계' 기사의 몇가지 오류

단순한 수치비교는 현상왜곡 우려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지난 233호(98년 4월 5일) 《출판저널》에서 특집으로 도서관 문제를 다룬 것에 대해 도서관인의 한 사람으로 매우 고맙고 반가웠다. 특히 그동안 서로간 특별한 관심이나 교류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확한 문제의식, 즉 출판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도서관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기획 의도에서부터 실제 기사들까지 적절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서로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파트너라 할 수 있는 도서관계와 출판계 상호간 이해증진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마련이나 실천에 있어 실제적인 협력과 유대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특집기사 중 한두 가지 지적할 점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다.

## 애정어린 지적 불가, 오류 많아

우선 "후진성 드러내는 우리나라 '도서관 통계'라는 기사는 그 제목에서부터 다소 혼란을 겪게 하였다. 필자는 그 제목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에 관한 통계가 "통계"로서의 후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정작 글을 읽어본 바로는, '도서관 통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통계로 보니 우리나라 도서관 현실이 매우 후진적이라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도서관 통계 작성이 일부 관여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어떤 반성을 위한 긴요한 귀뜸 같은 것을 기대하였던 바랍은 그냥 한 조그만 마음 속의 소동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도서관 문제에 관한 애정어린 지적들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꼼꼼히 읽어보았다.

앞에서도 말한 바, 통계 자체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이 글에서 몇가지 잘못되었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 첫번째는 도표에 관련한 것이다. 우선 '각국 공공도서관 현황'이라는 표가 있는데 이 표의 원자료가 '도서관협회'라고 했다. 그러나 그 협회에서 근무하는 필자로서는 이런 유형의 자료를 '한국도서관협회'는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자료를 보고 수록한 것인지 궁금하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수가 370개라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부가 집계한 1997년 말 현재의 수치인 것 같은데, 도서관협회에서 집계하는 수치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이 차이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간행하는 '도서관통계' 앞부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협회에서 이러한 수치를 담고 있는 자료를 만들지 않았음에도 이 자료가 도서관협회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한 것은 정정의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 있어 제기되는 문제인데, 단순한 수치만의 비교는 문제를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는 생각이다. 특히 서로 비교한 년도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것은 비교의 의미마저도 상쇄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도서관 370개는 1997년 말 현재인데, 미국의 15,346개는 몇 년도 통계인가? 그제 만일 1990년 통계라면 7년이 지난 지금은 몇 개인가? 이렇듯 국가간 비교는 좀더 신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상을 너무 단순화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시킬 가능성이 너무 높다. 즉, 한국의 370개는 미국의 15,346개보다 정확하게 42분의 1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대한 고민을 좀더 담아 내면 좋겠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비교'라고 한 표도 그렇다. 특히 비교항목 중 <공공도서관 연간 증가액수>에서는 단순히 자료구입비 총액을 적어둠으로써 독자가 통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였다. 또한 바로 위 표에서 한국의 도서관은 370개, 일본은 2,172개였는데, 그 아래 통계에서는 한국은 350개, 일본은 2,363개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도대체 이 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자료구입비는 그 나라의 연간 출판중수나 평균도서가격 등과 연결해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는 그 전체에서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두번째 단락에 '1개 도서관당 평균 인구도 우리나라가 12만 4천 명으로...'라고 적었는데, 몇 단락 아래에서는 '전국 평균 도서관당 인구 13만 917명의 2.7배나 되며...'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 통계년도를 표시하지 않은 것인데, 즉, 첫번째 문장은 1997년 기준, 두번째 문장은 1996년 기준으로 서술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적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만큼, 이 두 문장은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하든 하나로 정리되어야 한다. 이 기사는 여러 곳에서 그 근거가 되는 연도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고 있다.

## 기획의도 제대로 못살려

끝으로 분명히 교정과정에서의 착오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3단 중간쯤부터 시작하는 '97년도 예산 편성시 책정된 내역을 보면 인건비(1445억원), 자료비(866억원), 기타잡비(131억원)의 순으로 되어 있다'고 한 부분이다. 이것은 명백한 오류로 정확한 수치는 '97년도 도서관 총예산이 1445억원, 인건비가 900(899.9)억원, 자료비가 132억원, 기타잡비가 414억원'이다. 이러한 교정상 잘못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 132억원의 자료비가 899억원으로 둔갑해 버리게 되어, 현실을 오도할 것이 명백하다. 자료비를 132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단락 및 줄 위에 '97년에는 겨우 173억원(도서관당 4700만원)만을 도서관구입비로 썼을 뿐이다'라고 한 것과는 또 차이가 난다.

이번 기획기사가 의도한 바, 도서관 통계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정작 기사 자체에서는 부정확한 통계나 무의미한 통계수치를 사용함으로써 본래의 좋은 의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물론 필자는 무엇보다도 우선 도서관통계가 제대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앞으로 도서관계가 시급히 해결할 문제일 것이다. 이제 출판계에서도 도서관 현실에 대해, 도서관 개혁과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만이 출판이 살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도서관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 도서관인으로서 매우 반갑고 한편으로는 부끄럽다. 앞으로 서로 협력하여 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보완해 간다면 두 부문 모두 잘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번 기획은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출판저널》에서 이 시기에 도서관 문제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절한 글을 실어준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

<'각국 공공 도서관 현황' 도표는 '공공도서관협의회' 자료임을 밝힙니다.>

소식

## 어린이와 함께한 출판기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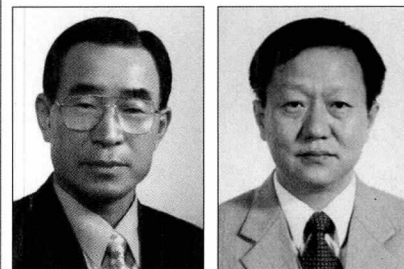
<옛이야기 보따리> 완간기념



'보리' 주최로 열린 출판기념 행사.

도서출판 보리(대표 차광주)는 지난 4월 22일 마포 서울대 동문회관에서 <옛이야기 보따리> 완간을 자축하는 이색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동화작가 윤구병씨를 비롯, 어린이도서연구회 등 관계자와 어린이, 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저자인 서정오(대구 감천고등학교 교사)씨의 강연과 옛 노래 배우기 등 어린이와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돼 어린이들을 즐겁게 했다.

## 교보문고·종로서적 새 대표이사 취임



박환익씨.

민병인씨.

교보문고는 지난 4월23일 신임 대표이사에 박환익(61)씨를 선임, 취임식을 가졌다. 박환익 신임 대표이사는 해병대 부사령관을 지낸 소장 출신으로 90년 예편, 원우 아스콘(주) 대표이사를 거쳐 교보생명 전무를 지냈다. 한편 지난 4월17일 취임한 종로서적의 민병인(50) 신임 대표이사는 (주)서울문고와 (주)교민문고 등 서적계에 몸담아온 인물. "90년 전통을 이을 생동감 있는 젊은 서점으로 만들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 단체상에 이삼성·임철우씨 수상

한길사(대표 김언호)는 제12회 단체상 학술부문에 <20세기 문명과 야만>(한길사)을 펴낸 이삼성(가톨릭대) 교수, 문학부문에 <봄날>(문학과지성사)을 펴낸 소설가 임철우(한신대 교수)씨를 각각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3일(수) 저녁 7시 강남출판문화센터 이벤트홀에서 가질 예정. (515-4836)